

비구니 ‘호계·법계위원 진출’ 주목

■ 제197회 결산총회 쟁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가 오는 18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일간의 회기로 제19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34대 종단 집행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결산총회로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11일 출범한 총책모임인 ‘삼화도량’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삼화도량은 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선언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날카로운 정책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련 사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등 지난 총무원장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언급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법 개정, 비구니 스님 호계위원 진출 여부를 다룰 종헌개정안, 출가 활성화 특별법 등 종단 주요 현안도 다뤄진다. 이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안건이 ‘법인법’ 관련 안건이다. 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재단법인 선학원은 오는 7월 법인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종단이 제정 공포한 ‘법인법’에 따라 선학원 소속 분원을 6월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찰법’에 의해 교육, 수계 등의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선학원은 “법인법에 동의할 수 없

7월 시행 앞둔 ‘법인법’
선학원 이행여부 주목

청소년-단기출가특별법
종단현실 맞게 개정될듯

고 자구책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 이에 반해 재단법인 대각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종단과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겠다”고 의견을 모으며 선학원과는 선을 긋고 있다.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선학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은 “종정 스님은 물론 집행부와 잘 협의해 이번 임시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계종 중앙종회 연합 총책모임인 ‘삼화도량’이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종단 비구니 스님들의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호계·법계위원’ 진출여부도 눈여겨 볼만하다. 초심위원회에 한정된 기존 안에서 재심위원까지 확대한 종헌·종법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초심·재심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종단 내에서 “비구니 스님에 대한 갈마는 비구니 스님이 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총무원, 중앙종회, 호계위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심까지 허용한 개정안에 대

한 이견이 있는 만큼 원안에서 일부 수정될 여지도 있다. 중앙종회 의원 구과스님은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을 최소화했다”면서 “법계위원 참여는 지난 총회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6월 제19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이 종단 현실에 맞게 개정될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기존 특별법이 소년출가와 청소년출가의 연령이 중복돼 법 시행에 혼동이 예상되고, 일반출가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총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존 소년출가의 나이를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해 단기출가 나이만 19세 이상과의 중복을 피했다. 소년출가자의 사미·사미니계 등 수계자격에 대해 일반출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행자교육은 면제하되 기존 교육법에 따라 수계교육을 이수하고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진장스님 임직에 따른 원로의원 추천을 비롯해 상임분과위원장, 종립학교관리위원회 등 인사에 관한 안건과 승가고시법 개정안, 의례법 개정안 등 지난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조정 ‘촉구’

실천승가회, ‘94종단개혁 정신 계승’ 강조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후)가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아 개혁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조정, 선거법 재개정 논의, 종단 내 권력분립 등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며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법규위원회의 판결 후 4년여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수를 조정하러

는 노력들이 좌절되었다”고 지적하며 종회의원 의석수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천승가회는 “교구별 중앙종회의원의 의석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총무원장 선거 등 각종 선거법의 재개정논의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와 종단 제 분야의 과도한 특권해소, 비합리적인 종단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삼화도량’

1면에 이어

삼화도량의 ‘삼(三)’은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에서 ‘화(和)’는 원호스님의 ‘화정(和靜)’에서 각각 인용한 것이다. 앞으로 산하에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삼화연구소’를 설립해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1일 출범식 직후 △총무원

장 직선제 도입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종무행정 △한국불교의 수행법 대안 마련 △서울 및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 △총무원장의 권한 축소와 역할 조정 등을 핵심정책으로 제안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삼화연구소장 법인스님은 “종파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연구는 지양하며 종단의 큰 틀 속에서 종단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개발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전’도 모르는 문화재 기관

‘월간문화재’ 보우대사도 엉터리 소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종진)이 발행하는 <월간문화재>에 조선불교 중흥조 허응당 보우대사를 폄하하는 글이 실려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3월호 ‘지명이 품은 한국사·말죽거리 그 누가 지은 땅이름인가’라는 글. 이 글에 따르면 보우대사는 당파를 업고 날뛰 ‘요승’이다. 특히 말죽거리 지명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면서 보우대사를 임금의 진상품으로 올랐을 제주 조랑말로 묘사했다. 보우대사가 제주에서 순교 후 조랑말로 환생해 임금의 진상품으로 서울로 들어오던 중 죽을 먹고 달아났다고 해 봉은사 근처의 그곳을 ‘말죽거리’라 부르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고영섭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은 “말죽거리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역참들이 타고 온 말에게 죽을 풀여 먹고 쉬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며 “폐막추기식으로 보우스님과 연관이 있다고 한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보우스님을 ‘요승’으로 서술한 것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난 유교적 입장에서 쓴 것”이라며 “스님은 평생 불교 개혁을 위해 힘쓴 순교자”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봉은사의 ‘판전(板殿)’ 건물의 현판은 ‘전판’이라고 썼다. 봉은사의 또 하나의 상징인 마루대불은 ‘석가상’으로 표기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것은 책 편집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서정익 선생이 쓴 <고급 청담>이라는 책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글 말미에도 미신 같은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봉은사는 해당 기관에 공식 항의를 한 상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승려복지법 ‘안정운영 기조’로 수정

연금지급 1년 연기 배경

중앙-교구 협조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연계 등
실질적 혜택 반도록 조정

오는 4월 예정된 ‘수행연금’ 지급 시기가 1년간 미뤄지는 등 스님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승려복지법이 중·장기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차 중

무회의를 열고 수행연금 지급시기를 승려복지법 공포 후 3년에서 4년으로 연기하는 ‘승려복지법 일부개정

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1년 4월 제정된 ‘승려복지법’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설치하고,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행연금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1년간 미뤄지게 됐다. 실제 지난해까지 확보된 승려노후복지지금은 20여 억 원이다. 현재 승려복지회에서 파악한 종단 내 수행연금 지급 대상자만 최대 300여 명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올해만 5억4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종단은 앞으로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국가 사회보장

제도를 종단과 연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스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과 교구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현행 승려복지법이 종단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화엄사 승가대학(강원) 학인 모집

화엄사 승가대학은 올바른 불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함양시키고 자비실천의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를 육성하는 최고의 수행터전이 되고있습니다. 화엄사 승가대학은 현 운영위원장이신 영관 주지스님의 교육불사의 확고한 원력을 힘입어 강주 원오스님 이하 강사스님들과 학인스님들이 열심히 정진 연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 전(화엄사 승가대학에 입교하시면)

1. 매월 승려복지 지원금 30만원 및 기타 장학금 지급
2. 매월 현장체험 학습 1박 2일
3. 졸업여행 경비 100만원 기본지원
4. 사회복지사 2급 및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500만원)

- 모집대상 1학년(치문반) 00명 2학년(사집반) 00명 3학년(사교반) 00명 4학년(대교반) 00명
- 모집기간 2558년(2014년) 2월 16일 ~ 3월 22일(토)
-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강원 소정양식)..... 1부 ② 승적증명서(사미증이나 수계증 사본) 1부 ③ 은사스님 추천서 1부 ④ 수료증(편입생) ⑤ 주민등록증 사본 ⑥ 건강진단서..... 1부 ⑦ 사진(만의, 장삼 수한 것 / 3X4cm) 8매
- 준 비 물 만의, 장삼, 발우
- 문 의 처 강원(061-782-0029), 학갑스님(061-782-0107), 종무소(061-783-7600)

☺화엄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영 관(靈觀) 학 장(강주) 원 오(圓悟)